

與 ‘선진화법 개정’ 카드로 野 ‘특검 공세’ 막기

새누리, 위헌여부도 검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추진

민주 “날치기 본능 부활” 矣 “여야 합의 뭐가 되느냐”

새누리당이 1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하자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경색된 정국의 또 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되지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어(對輿) 공세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

국회 선진화법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정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추진기로 했다. 이는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

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찌감치 저지 방침을 밝히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

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로 발현되고 있다”며 “코미디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여야 합의의 뭐가 되느냐”며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을, 노란 은행나무 아래서 전화기를 들다



(52) 만추

“멀리 쓸쓸한 산 오르
는 경사진 돌길/하얀 구름
이네/저녁 단풍 숲이
좋아 수레를 멈추니/서리
맞은 잎은 이월의 꽃보다 붉구나”
(두목(杜牧) 작 ‘산행’)
푸르던 잎이 낙엽 되어 흩날리는 계절이다. 언제 생명의 환희에 찬 봄을 좋아했던가 싶게 이 가을이 번덕스러운 가슴에도 깊게 파고든다. 가을 거리를 지나다가 샛노랗게 물든 가로수 은행나무를 만나 옛 시인을 본떠 차를 멈추고 싶다. 가던 길 멈추고 한 줄금 바람에 우르르 나뭇잎 떨어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온 가을을 맞이한다. 가을의 절정 속에서 대지를 덮고 있는 마른 낙엽을 밟으며 아무 이유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오건규 작 '추성전화(秋聲傳話)'

사내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조금은 예스러운 ‘가을 전화’ 속 풍경이 낯설지 않다.

중국 북송 때의 화가 곽희의 언급처럼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고, 시는 형태 없는 그림(畫是無聲詩 詩是無形畫)’이라더니 묵운의 작품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11월의 나무에 대해 붓으로 시를 그렸다. 시와 그림은 표현기교는 다르지만 화가의 정서와 시인의 정서가 다르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 우리 동양화의 시화 일체 사상(詩畫一體思想)을 그의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만추의 시심을 누리고 싶게 만드는 것이 그림의 힘일 것이다. 묵운은 남종화의 대가 아산 조방원선생의 애제자로 문기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정어린 감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묘사해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반가운 미소 민주당 문재인 의원(왼쪽)과 박지열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스

민주, 보이콧 풀고 원내 복귀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14일부터 정상적으로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주 들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온지 3일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예결산심사 및 법안심사가 14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4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분회의의 시정연설에도 참석하게 된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국회의사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18일 시정연설에도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국회의사일정에 참여하기로 한만큼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야당의 요구사항과 간극이 너무 크면 그 이후 의사일정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특검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18일 있을 시정연설까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형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황찬현 후보는 오늘 채택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가 전체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 없어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

의 이유로 반대했다.

문 후보자는 12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안카드를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논란을 빚었다.

청문 경과보고서가 무산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타이핑 절묘


www.황칠나라.kr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현역력 이보다더 좋을 순 없는데...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여수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다담(주)
전남 진흥군 장흥읍 해곡리 69-3